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본격화

나주혁신산단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시동
설계비 10억 국비 확보 · 11월 착공 예정... '2분원' 개념

민선 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 핵심 공약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 2단지 조성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다.

21일 전남도와 전남TP에 따르면 김 지사의 공약인 나주 왕곡면 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사업이 국비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창업기술혁신 인큐베이팅 및 비즈니스 거점 설현을 위해 나주혁신산단 내 4만㎡(약 1만2000평) 부지에 2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1차로 1만3000여 m²(4000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와 전남TP는 센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60억원(국비 160억

원·지방비 100억원) 중 설계비 10억원을 올해 국비 예산으로 확보했다.

중장부용자심사에 이어, 설계에 들어가면 이르면 오는 11월 센터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기업지원동 및 생산동, 정부출연기관 분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에너지-ICT 창업기업의 보육과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1차로 지식산업센터를 제2분원 성격으로 출발해 추가로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기업 등을 유치해 명실상부하게 2단지 규모로 조성해 에너지-ICT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전남도 나주혁신도시지원단 건물내 전남TP 신하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센터가 9명이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 전남TP가 좀 더 특화된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중기진흥원, 부폐방지 시책평가 포상금 전액 기부

전남인재육성재단에 200만원 기부금



전남중소기업진흥원(원장 우천식, 이하 진흥원)은 2018년 공기 업·출연기관 부폐방지 시책 최우

수기관 포상금 전액을 전남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며 나눔문화를 실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진흥원은 전라남도 주최 2018년 공기업·출연기관 부폐방지 시책 평가결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부폐방지 시책평가는 기관 특성별 부폐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반부폐·정렬정책 실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매월 정렬 소통의 날 운영,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개최, 정렬리더제도 운영 등 기관장부터 정렬실천 의지를 갖고 직원 모두 정렬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우현식 원장은 "부폐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직원들의 정렬실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광주 지역화폐 3월 출시...소상공인 지원대책 집중

광주시는 21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오는 3월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올해 '소상공인과 지역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화폐인 '광주시 카드상품권'을 3월 출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카드상품권'은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사용범위는 광주지역

으로 제한하되 백화점과 기업형 SSM, 대형마트 등은 제외한다.

광주시는 또 현장 체감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 사업'도 처음 시행한다.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이 시행하는 30여개 지원 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소상공인 지킴이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접수 대행부터 실행, 원료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쉼터와 지원센터 등을 설치

하고 전기·가스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300억원 규모의 영세지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경영 지원도 강화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10개 시중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며 협체당 대출액은 2500만원 이내다.

광주시는 폐업·노령·사망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 기금 장려금 지원도 추진한다.

서은홍 기자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
국립수산물품관원 목포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지원장 박덕만)은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세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조기·문어 등 세수용 수산물과 글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상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가리비·방어·대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은 2018년에 원산지 미표시 2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일본산 흥어, 중국산 민물징어 등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동구,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광주 동구가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인원은 온라인일자리공유기제 운영지원, 폐지원 재활용사업, 관내 환경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87명이다.

동구는 올해 민선7기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공유기제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2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4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렸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기준중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동구거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구, 책이음 회원증 배달 서비스 돌입

광주 서구가 책배달서비스 운영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책이음 회원증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책이음 회원증'이란 하나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 어디서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증이다.

그 동안 회원증을 발급받으면서 서구 구립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21일부터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증 배달 신청을 하면 책배달서비스 운영 작은도서관 20개관을 통해 회원증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서비스는 매주 화~금요일(주4일), 책배달서비스 차량을 통해 운영되며 회원증 발급 시 둔자메시지로 통보되며 배달 신청한 작은도서관에서 회원증을 수령하면 된다.

남구, 설 명절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광주 남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에 대해 이력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비롯해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체·식육 즉석판매 기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점, 수입 쇠고기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구는 이 기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비롯해 1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북구,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구민운동

광주 북구가 지속 가능한 문화시민운동 정착을 위해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 북구는 22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구민운동협의회 청립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민운동협의회는 이상배 부구청장과 김동수 주민자치위원회장단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북부서, 동부교육지원청, 언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9명이 참여해 구민운동 추진계획,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북구는 안전과 친절 2개 분야와 교통안전 실천운동, 교통지도단속 강화, 내가 먼저 인사하기 실천운동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광산구,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18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선으로 제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안부 등이 중앙행정기관·시도교육청·광역·기초자치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관리기반과 민원 처리성과 등 3개 부문 21개 지표를 놓고 기관 유형별 상대평점으로 실시됐다. 광산구는 304개 기관 중 상위 10%에 속하는 등급을 받아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가운데 광주시를 포함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가' 등급을 받은 곳은 광산구가 유일하다.

임형택 기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8년도 1796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오상선(410408-1637726)
최후주소 :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길 51
등록기준지 :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길 343

위 망 오상선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월 22일

공고인 : 오선주, 김장열, 오유경, 오방호, 오선미, 오선태.
주 소 :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로 61-20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1월 16일
공고기간 : 2019. 1. 22 ~ 2019. 3. 23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 인 설립
- 영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견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포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 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